

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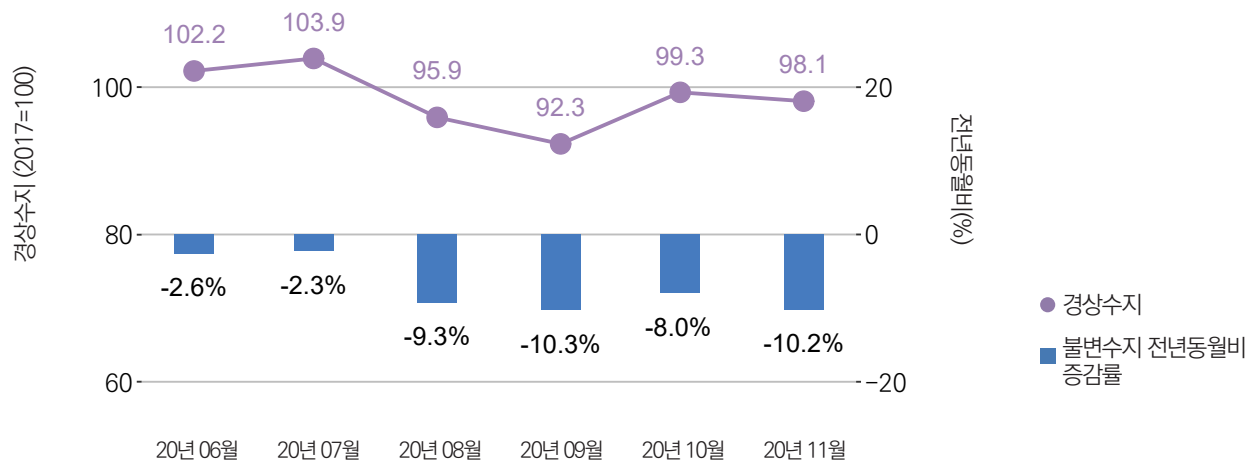
•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0.2% 하락, 전월보다 내림폭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-10.2% = 소매업의 기여도 -0.0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0.2%p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
- 1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의 하락은 숙박·음식점업의 부진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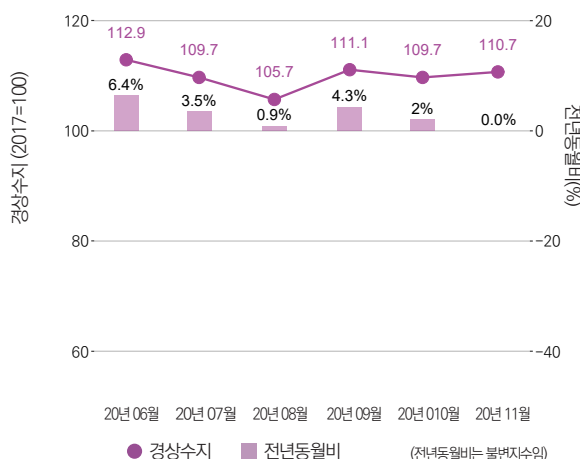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경기지수는 0.0%,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는 25.7% 하락

- 가전제품·정보통신업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음식료품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감소폭이 커지면서,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던 소매업 소비경기지수가 11월에 접어들며 전년동월 수준(-0.0%)에 그침
- 11월 서울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연료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, 종합소매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숙박업의 감소폭은 다소 줄었으나 음식점업과 주점·커피전문점업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11월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-25.7% 하락. 내림폭도 전월(-22.6%)보다 증가
- 11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소비 증가 업종 없이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 감소

| 서울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 |



|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